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여 오시옵소서"(요한계시록 22장 20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62-3498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송구영신 촛불예배

'89년 12월31일 오후 11시30분부터

1989~1990년 송구영신 촛불예배가
90년 1월1일 0시 충현교회 본당에서 개최
된다.

이날 순서는 이종윤목사 사회와 설교를
진행되는데, 오르간전주로 부터 시작하여
빛의 등장, 빛의 전달, 예배의 부름, 찬송
(248장), 신앙고백(사도신경), 찬송(460
장), 참회와 감사의 기도(김동렬목사), 성경
봉독(신 33장 24~29절), 찬양(연합찬양대
, 신년메시지(이종윤목사), 기도① 세계평화(전쟁의
소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근(영육으로
주린 인류를 위해서) 인권(억압받는 인류의
고통을 위해서) ② 국가/ 복음화된 통일조
국을 위해서(민족복음화)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교육, 국방을 위해서, 이 민족의
도덕과 윤리성 회복, ③ 교회/ 세계교회,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전파, 말씀의 회복, ④ 우리교회/ 진
리, 사랑, 섬김의 공동체, 세계 선교센터,
충현복지마을,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의 새해 기원이 있다.

교역자·장로·성도들간의 새해인사가
있는 후 찬송(358장) 부른후 축도로 마친
다.

송구영신 촛불예배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1989. 12. 31-1990. 1. 1

- ▲오후 11:30 찬양대 입장 완료, 소
등.
- ▲11:30-11:50 개인기도
- ▲11:50-11:53 빛의 내림(입장) 위임
목사
핸드벨콰이어 목사전
원
- ▲11:53-00:00 빛의 분여(낭독)
위임목사→대표 교역
자 2명→교역자
- ▲0:00-0:02 예배의 부름(사회자)
- ▲0:02-0:08 찬송(시온의 영광이 빛나
는 아침)
- ▲0:08-0:10 신앙고백
- ▲0:10-0:15 찬송(지금까지 지내온
것)
- ▲0:15-0:20 참회와 감사의 기도(김동
렬목사)
- ▲0:20-0:23 성경봉독(사회자)
- ▲0:23-0:30 찬양(연합찬양대)
- ▲0:30-0:55 신년 메시지(이종윤목
사)
- ▲0:55-01:15 소원과 헌신과 결심

(목회 기도포함)

- ▲01:15-01:20 새해인사(서로서로,
교역자, 장로)
- ▲01:20-01:25 찬송(아침례가 돌을
때)
- ▲01:25-01:30 축도(이종윤목사) 주기
도송

교역자·장로부부
신년 하례회

본교회 교역자및 장로부부들의 신년하례회
가 1990년 1월2일(화) 오후6시 만나홀에서
개최된다.

이날 모든 준비는 무지개회(장로부인)에서
담당한다.

안양보육원 위문
핸드벨 단원들

본교회 핸드벨콰이어 단원들이 지난 12
월27일 오전10시 안양 보육원을 방문하여
부모없는 고아들을 위로했다.

이날 행사에는 1부 기도를 김주아전도사
인도로 진행하고, 2부순서로는 동 단원들
의 핸드벨 연주,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중창등
의 순서를 가졌다.

또 이들은 준비해간 떡국을 원아들과
함께 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다.



▲ 성탄축하 찬양의 밤

카 메 라 초 점



▲ 핸드벨 단원들이 안양보육원을 방문 고아들을 위문했다.

충현 사랑의 집 건립

기공예배 90년 6월20일

이미 기도해왔던 충현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기공예배가 오는 90년 6월20일 드려질
예정이다.

지난 12월27일 12월 정기당회에서 결의된
동 사랑의 집 신축계획서에 의하면 극빈자,
교인및 인근주민의 자녀들을 수용할 탁아소
를 비롯하여 80명 수용의 숙소, 400명 수용의
노인대학, 100명 수용인원의 장애인 재활
시설, 장애인대상의 점자도서관(50명 수용) 그리
고 4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결혼식장, 장례
식장, 교회학교 학생들 성경공부를 위한 분반
공부실 20실, 그리고 지하주차장 168대 수용
되도록 지하 1, 2, 3, 4층에 건립케 된다.

이 모든 설계는 지하를 이용하는 것이
특색이다.

"사랑의 집·복지마을·
세계선교훈련원 건축현금

지난12월 중 본교회 사랑의 집 및 복지마
을, 그리고 세계선교훈련원 건축을 위해 많은
성도들이 헌금했다. 특히 이들중에는 신임

직분을 맡고 감사하면서 정성스런 헌금을
바친 성도도 있다.

건축현금 명단은 다음과 같다(무순)

이상영, 안숙자, 한오래, 장 승, 유순여,
강정선, 윤옥녀, 박성순, 한정희, 정숙인,
함순래, 황명하, 최을상, 故김순현전사 유가
족, 이인상, 윤병인, 김중선, 김정선, 조창
선, 양순옥, 김종열, 장요성, 김경래, 강희
창, 한정희, 최정자, 이호성, 이정순, 이근
옥, 노정자, 이공님, 서금순, 이인술, 김대
위, 박정숙, 박성순, 김연수, 무명2인, 임용
재, 박해권, 이득해, 전정우, 표봉애, 강정
옥, 염종순, 장석찬, 유금화, 장사열, 안덕
윤, 최한태, 이홍순, 소재철, 전옥미, 노정
자, 이남재, 한숙원, 지상연, 김중복, 이선
우, 백기영, 이희자, 황경래, 김경희, 심귀
례, 양근석, 남용승, 방애주

금요철야 기도회
2교구가 공동주간 진행

새해부터 금요철야 기도회 운영방법이

달라진다.

작년까지는 교구별로 실시하던 금요기도회
를 90년 첫째주 금요일부터는 2개교구가
공동으로 동원책임을 지고 기도회 운영위원
회가 주관하여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교구 7교구, 2교구 8교구, 3
교구 9교구, 4교구 10교구, 5교구 11교구,
6교구 13교구, 그리고 12교구 14교구가 팀이
되어 기도회를 갖게 전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
록 홍보 했다.

남여전도회 회장 모임
12월31일 오후3시30분 갈릴리움

전도위원회(위원장: 오태희 장로)는
새로 선임된 1990년도 남여전도회 회장
모임을 12월31일(주일) 오후3시30분 갈릴
리움에서 개최한다.

각교구내 지회 회장들은 전원 참석을바
라고 있다.

주간충현 편집국 이전

「주간충현」신문사 편집국은 1990년
1월1일부터 현재 소석관 112호에서 선교관
407호로 이전하며 업무를 계속한다.

이종윤위임목사의 수요예배 성경강해 시리즈 24



본문 / 요 7:1-10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 삶 가운데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낭비가 되거나 오용이 되어질 때에는 중요한 시간이 오히려 없었으면 좋을뿐한 그런 시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생의 삶이 공허해질 때에 시간을 지루하게 되어 있고 인생의 삶이 충만해질 때에 시간은 날아가듯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여겨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셰익스피어는 시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툼니바퀴에 끼여있는 시간” “시간이 툼니바퀴”라는 말입니다. 툼니바퀴가 서로 돌려서 굴러갈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원치 않는다 해도 다음의 툼니바퀴를 또 기다리고 돌려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툼니바퀴에 물려가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시간이라고 문학적인 표현을 했던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이 시간을 선용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보다 오래 계속될 것,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나 여러분은 시간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저 지평선 너머 속에 보여지는 시간을 보지 못하는 때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석하면서 “예수님도 별 수 없어서 그랬다 하셨다. 잠시 후에 되어질 일을 모르고 결심했다가 무너지는 것이 예수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time)라고 하는 말은 창조 안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철학자 칸트가 우주를 설명할 때 우리를 시간과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공간 창조를 우주라고 보기 쉬우나 시간도 우주입니다. 그래서 시간 세계와 공간 세계를 합친 것을 우주라고 봅니다. 어거스틴은 시간을 피조물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이 피조물인 것처럼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피조물에게 얽매이지 않으시므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영원 속에서 시간 개념을 오히려 자기의 시간표에 적용을 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간다고들 말합니다. 일년 365일이 십대 소년소녀들에게는 365일로 계산이 됩니다. 스무살 된 사람은 365일이 아니라 세월이 조금 빠르다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30대의 사람들은 세월이 얼마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시간표가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볼 수 있다면 의미있고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거니와 모두셀라와 같이 969세를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뜻없는 삶이요 가치없는 삶입니다.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살되 뜻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을 면대하고 있는 시간이고 영원과 접하고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생일대에 이 시간이야말로 매우 가치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하고 있습니다. mis-use,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오용하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2. 그리스도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하

이 되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역만급을 벌여 오거나 수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았어도 그것도 무의미한 생입니다. 하루살이가 불앞에서 굉장한 힘을 가진 것처럼 즐거워하며 뒹뒹거리고 돌아다니지만 하루가 되면 불속에 들어가 죽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흠으로 왔으니 흠으로 가는 인생들, 40을 살다 가든 70을 살다 가든 인간은 한줌의 흠이 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은 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남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뜻있게 산 그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과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일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저녁도 못 잠수시고 수고하시는데 일주일의 생이 이 시간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처럼 기쁜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일을 많이 시켜서 바쁘다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일로 바쁜 것이 아니라 제살기에 바쁘십니다. 그렇게 바쁘게 허기지게 돌아다니다 보면 마지막에는 ‘허무하다’는 말 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때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불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보시어서 자기 생 속에서 구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때를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때를 의미있게 만드시고 우리의 때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모든 것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만 과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을 무시해서도 안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현재를 주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1989년 이제는 불과 열손가락으로 꼽아야 되는 몇달이 남았지만 남은 날이 짧거나 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질문을 자신에게 계속하면서 손목에 있는 시계를 한 번 쳐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인생의 삶에 몇시나 되었는가?

“하나님은
사랑
이시니라”

지금은 몇시?

빠른지 200일 밖에 안될 것입니다. 40대가 되면 여섯달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70대가 되면 365일이 사흘 반 지나가듯이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이 무상한 만큼 빨리 지나갑니다.

1. 하나님의 때

세월이 정말 지나갔습니까?

기차를 타고 가면 전봇대가 지나갑니다. 사실은 전봇대는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전봇대 앞을 지나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신 섭리 가운데서 이미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그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러하고 그의 모든 생애와 부활하신 것이 그러하고 다시 오실 것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열까지 전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 4:4-5절을 보면 ‘때가 차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켄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도달해야 하나

“하나님의 계획되고 현재를 주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영위토록”

지방에서 일을 하실 때에 유대 땅으로 가시는 것을 몹시 꺼려하시는 정면을 보게 됩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시는 것을 꺼려 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대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 나사렛 동리를 중심으로 갈릴리 땅에서 행한 일을 유대 땅에 가서 했더라면 지금쯤은 굉장히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이 시골 구석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교훈을 퍼뜨리고 기적을 행하여 한 번 평성을 얻어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유대 땅에 가야 할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방금 거절을 해 놓으시고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또 올라 가셨습니다(10절).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것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샘에서 물줄기가 시내를 이루며 산 밑으로 내려 가는데 때로는 살람이 우거진 숲속을 헤쳐 나가고 한참 가다 보면 풀짜기를 지나고 조그만 마을을 지나고 또 큰 도시를 지나서 바다로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확일렛트가 밑을 내려도 보면 산 왼쪽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만 과거의 시간이 있고 현재의 시간이 있고 미래의 시간이 있지 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담과 하와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십자가의 시간과 부활의 사건을, 오늘 당신과 나를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 수천년 전 아담이 범죄한 것이 나에게 오는 범죄요 2천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에게 효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흘러가는 물줄기와 같이 지나가는 전봇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앞을 내가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현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계십니다.

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시간표에 맞추는 때를 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빨리 유대 땅으로 가서 한번 이름을 떨쳐 보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내때가 이르러 않았다고 거절하신 것입니다(계 13:8, 고전 15:3, 행 2:22-23, 벰전 1:18-20).

3. 작성된 시간표

예수님은 7장 6절에서는 거절하셨지만 10절에서는 다시 올라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가 유대 땅으로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계획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야 할 시간까지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호시는 시간 계획까지도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때를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의 하나님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연결

교회상담 안내

충현교회 상담실

신앙상담(상담자: 이두란전도사)
매주 화요일부터 주일 오후4시까지
(단, 월요일은 휴무함)
일반상담(상담자: 정소영씨)
매주 수·목·토·주일(오전9시~10시, 오후 1시~5시)

회계교육 안내
감사실 1월9, 10일

교회 감사실은 각부서 회계교육을 오는
년 1월9일(화), 오후7시, 또는 1월10일
(수) 오후1시 본당1층 베다니홀에서 실시한

교육 참가대상은 각위원회 회계를 비롯한
남여전도회 회계및 부회계, 찬양대 회계,
학교 각부 회계, 그리고 면려회 회계등인
이들 일정가운데 하루를 택하여 교육받으
니다.

스테반회 89년도 총회
각부서 임원들 선임

본교회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스테반회가
년 12월21일(목) 오후7시 89년도 총회를
각부서 임원들을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동회 고문 윤영식장로
회로 진행, 지도교역자인 김성윤목사의
고가 있었다.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장: 김여순
- ▲서기: 나희주 ▲부서기: 정정주, 한송규
- ▲회계: 주원홍, 이동명 ▲교육부장: 이병
- ▲선교부장: 이정우 ▲구체부장: 임봉남
- ▲전부장: 강봉수 ▲찬양부장: 전홍열,

대학부 집회

90년 1월6일(토)부터 "토요집회" 단행

교회의 발전과 대학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부의 집회를 토요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참석하고 싶어도 시간과 여건에
맞지 못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청합니다. 다 오셔서 대학부의 새 세대를
이어주시다.

· 매주 토요일 오후3:30분(1월6일부터
실시)
· 소석관 514호

초대 편집국장 임기를 마치며

나는 언제나처럼 화요일 오후
6시만 되면 4평 남짓한 소식관
112호(주간충현 편집국) 좁은
공간에서 무엇인가에 대해 골똘하
게 되는 버릇이 생겼다.

그렇게 하기를 9개월! 이제는
그런 상황을 잠시 소개하며 홀가
분하게 자리를 떠나려 한다.

프린트미디어를 교회언론이라
는 차원에서 충현교회 기독교문화
에 접목시키려는 의지표현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는 후세에
우리의 후배들이 이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있을 것을 먼저 전제하
다.

양적으로 팽창되어가는 충현교
회 교인성장 추세와 더불어 그리
스도안의 교제, 성도간의 위로와
축하, 그리고 강단메시지에서
주었던 말씀의 재음미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주간충현」은 그
사명이 막중함을 느낀다.

비록 파블로이드판 4면이지만
매주일 씹임없이 인쇄되어 배포된
다는 일은 그리 쉽지만은 아니했
다.

처음 이 일을 맡았을때 부른
가슴이었다.

편집계획은 이렇게 세우고,

취재는 저렇게 하며, 기사작성은
요렇게 하고, 지면구성은 보기 좋
게 하는데, 많은 충현인들이 자원
봉사하게 될 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생각밖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자원봉사자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고, 몇몇 대학생들
과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으
나 직접 현장에는 뛰어들지 않는
무력함(?)을 보았을 때 인간적으
로 몹시 실망했다.

나는 1인 3·4역을 감당하면서
주어진 책무에 대한 애착, 그리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무지

“격려의 편지·전화 큰 힘이 되었다”
“협력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려”

한 마음이 매일 매일 채찍질했
다.

밤에 기사를 작성하고, 새벽에
편집대지작업을 수 없이 반복하면
서 피곤이 겹치고일에 대한 짜증
도 없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
한다. 그러나 신문을 받아전 성도
들로부터 신앙생활에 유익과 교회
뉴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격려의 말씀과 그리고 교회밖의

「주간충현」을 받아본 여러 교회
성도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의 독자들로 부터 격려의 편지
와 전화를 받았을 때, 외롭지 않았
다.

씩 내용도 좋지 않게 편집되었
지만, 이해하고, 오자와 틀린제목
이 발견되어도 부드럽게 지적해
주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애정어린
충고가 있었기에 「주간충현」 편집
국의 미래를 향한 신앙성숙과
진보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좋은 신문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이 기도
가 펜을 들기전의 간절한 기도였
으며, 「열심히 했으나 부족했습니

다」이 기도가 신문 발행이후의
늘상 하는 기도였다.

한 호, 한 호 발행하면서 구구
예수님의 구원감격을 내자신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몹시
피곤한 작업이었지만 건강을 주시
고 문필의 능력까지 주신 살아계
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동안 신문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이종윤위임목사님께
이 자만을 통하여 머리를 숙여



손경수 (장로·주간충현 편집국장)

감사드립니다.

매스미디어에 대한 지대한 관심
을 가지시고 충현교회 성장과
번혁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키
위한 언론장르의 개척자적인 이목
사님의 이해와 협조와 도움이
없었다면 무척 힘이 들지 않았
나 생각되어진다.

또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 이종
국장로와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함께 사역을 감당한 청년2부 최성
철형제와 심상희자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여러분과
독자들에게도 보는 기쁨과 읽는
기쁨에 동참해 주십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잡음

☆제43호(1989년 12월23일자)3면 기사중
야랜찬양대 대장은 「윤성철」 장로이며, 반주
는 「백곡목」 선생으로 바로잡으며, 할렐루야
찬양대 부대장은 「양충훈」으로 바로잡습네
다.

독자의 글

탁아부와 우리아기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되 충현의 탁아
부를 신설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수요1부예배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는 영광과 존귀
와 새 노래로 찬양을 돌립니다.

탁아부에 박병진(만 2살·섭섭해도 1990
년 부터는 영아부로 보낼 수 밖에 없음)을
맡겨놓고 대예배실로 향하면, 하나님께 그리
고 탁아부의 전도사님이하 모든 분들께 대한
감사의 눈물이 눈앞을 흐리게 한다. 그분들을
위해 진경으로 기도하고 대예배실에 앉으면
어찌 그리 좋은지! 아기가 없어도 아기
걱정않고 마음놓고 하나님께 주일 대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다니! 할렐루야! 아멘!

더더욱 좋고 감사한것은 병진이가 탁아부
에서 찬송을 배워서, 집에서 놀때에 가사는
발을 하지 못하지만 곡조는 분명히 똑똑히
신나게 부른다. 어떤때는 목청을 돋우워 열심
히 부른다. 자고 깨서도 침대속에서 찬송을

한다. 어린아기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식과 찬송이 분명 탁아부를 통해서
심겨짐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때, 가장 기쁘고 감사한
때는, 기도하는 모습을 볼때와 찬송하는 목소
리를 들을때이지 않은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로 언뜻보면 병진이가 부엌를 보고 기도하는
모습이 가끔씩 눈에 띄인다. 그때마다 나는
혼자 감격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아버
지! 제 어린 것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전
알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잘 아시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수요1부 예배때는 기도드리고(하나님아버
지 병진이를 재워주시고 혹 자지 않으면 주님
께서 같이 놀아주세요 제가 예배드리고 돌아
올때 까지요. 아멘!) 역지로나도 침대에
뛰어놓고 예배 드리려 했었는데 이제는 수요
1부 예배때도 탁아부에 맡길 수 있게 되니
연기 없고 감사하다.

교역자 청빙

본교회 일본이 예배를 위하여 일본인
교역자를 초빙했다.

초빙된 교역자는 다음과 같다.

▲청수길용(1953년 12월31일생)

동경대학 국제관계학 졸업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

남부노회에서 89년10월 목사안수

박형용목사 협동목사 청빙

‘당회는 12월 정기회의에서 현재 장년2

빈틈없이 연주하므로 영감의 찬양
이라는 찬사를 아낌없이 받았다.

우리교회 찬양대로서는 보기도
문 수작으로 이날 연주가 되었
고, 부르는 짧은 찬양대원들의
일출과 일몰은 마치 화늘의 궁전
에서 천사들의(?) 합창처럼 들려
왔다고 어느 찬양위원 장로는

찬양과 경배로 아기 예수님께 영광들려

칠찬을 아끼지 않았다.
수고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원
한다.

☆산타할아버지 등장

크리스마스일인 25일 오전
9시 예배를 마친뒤 본당앞 계단에
10명의 산타할아버지들이 등장하
며 예배에 참석한 교회학교 학생
들(영아·유치·유·초·소년
부)에게 사랑의 선물이 증정되었
다.

이 행사는 이종윤위임목사의
특별배려로 마련된 것으로 꿈과
성탄에 대한 조그마한 기쁨을
어렸을 때 경험해 보자는 취지에
서 교회학교 부장 장로들이 수고

를 아끼지 않았다.

☆교사리손들의 성탄찬양

25일 저녁예배는 교회학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학생들의
축하음악예배로 기쁨이 넘쳤다.

“생일을 축하해요 예수님!”
“아기예수를 경배하라.” “기쁘다
구주오셨네”등 12곡의 성탄축하
찬양이 불려질 때마다 참석한
부모들의 박수갈채가 그치지 않았
다. 특히 유년부 찬양대원들은
찬양이 끝나자 갖고 있던 과자꾸
러미의 선물들을 성도들에게 나눠
주는 애교까지 있어 더욱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충현프리즘

성탄축하 메시아의 밤

89년도 마지막을 장식한 성탄
하 찬양의 밤이 지난 24일 오후
1분당에서 있었다.

임마누엘 찬양대(대장: 박창호
로, 지휘: 조진목, 반주: 김훈
충현오케스트라)가 마련한
갈 메시아의 밤은 본당 아래층
작 찬 성도들의 가슴에 성탄의
쁨과 감격을 듬뿍 댔해주었다.
약 1시간에 걸쳐 연주된 메시악
은 제1부 예언과 탄생, 제2부
산과 속죄 제3부 부활과 영생을

독자의 글

시 상 품

<소년부 교사> 이 요섭

소년부가 내년 부터는 초등 5부와 6부로 분리되므로 금년을 마지막으로 하여 "소년부"라는 명칭을 더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수료 진급식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밝고도 서운한듯 하며 마음과 발걸음이 바빠 보였다.

"시상품은 수상자와 그들 부모님께서도 기뻐할 만한 것으로 엄선하여 준비 합니다"라는 부장 장로님께서 정해주시는 기준을 따라 상품을 구하기란 쉬운일은 결코 아니었다.

수상 대상자 명단을 보니 년중 특별한 행사기간 동안 훌륭한 성적을 거두어 상을

받았던 어린이들이 또 상을 받게 되어 있다.

겉치는 상품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더욱 신경이 쓰여졌다.

매차침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지난 전도기간에 전도왕 상을 받은 한 어린이가 "어머니 이 상품을 어려운 시골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하여 주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자원을 받아 들어 충현교회의 지원 교회에다 증정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용기를 얻었다.

예정보다 더 값지고 풍성한 상품을 준비 하여야겠다!

충현 교회학교에 이렇게 착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어린이와 학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소년부의 자랑이고 교회학교의 보배이며 충현교회의 귀감이 아닐 수 없다.

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책은 전부 올바르게 유익한 좋은 말씀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성경도 깊이 사랑해요. 항상 명회를 지켜봐 주셔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충현도서관 새책안내
도서 미반납자 반납촉구

충현도서관은 지난주간 새책이 들어왔다. 도서목록을 보고 참고하기 바라며, 그리고 도서대출해간 성도로 아직도 반납하지 않은 분은 속히 충현도서관에 반납을 바라고 있다.

새책 목록은 다음과 같다.

편, 기민사

- 세계의 박물관 1. 유럽 자연사 박물관 (화보 전집) 2. 대영박물관
- 3. 빅토리아 왕실 박물관
- 4. 런던 과학박물관
- 5. 루브르 박물관
- 6. 뮌헨 과학 박물관
- 7. 베를린 세계 민족 박물관
- 8. 일본 박물관
- 9.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물관
- 10. 스페인, 포르투갈 박물관/ 한국일보사편, 한국일보사

· 성서의 세계(화보 전집 전10책)/ 동아 출판사 편, 동아출판사

-신규 정기 간행물-

- 신앙세계/ 월간
- 크리스찬 타임즈/ 월간
- 카이트 포스트/ 월간
- 과학동아/ 월간
- 리더스 다이제스트/ 월간
- 루키와 신학/ 월간
- 새 빛/ 월간
- 신동아/ 월간
- 아시아기도/ 격월간
- 오늘의 어린이/ 격월간
- 출판 저널/ 격주간
- 시사저널/ 주간
- 기독교신보/ 주간
- 교회시보/ 주간



사랑부학생이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김명희 (사랑부 학생)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현교회 사랑부에 다니는 김명희란 소녀예요.

하나님을 너무도 존경하고 또 보고싶은 생각이 너무나 간절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동생과 싸우거나 엄마 아빠 말씀을 안들을 때도 꼭 내 마음속에 나타나서 "그러면 안된다"하고 다정한 말씀을 새겨 주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명회는 하나님을 경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명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바르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셔요"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욕심 같아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많이 많이 오래도록 하고 싶지만 그럴수 없는 것이 약간 섭섭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이실까? 매일매일 생각해 보면 자꾸 궁금해져요.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해주시며 항상 우리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

세침매기라고 몰라 보실까?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싫어하실까?

하나님은 이세상은 아직도 나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을 심판해서서 올바르게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몸을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용기를 잃지않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저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

-교회 레크리에이션 및 성극자료집-

- 사계절 레크리에이션/ 홍사성편, 은혜출판사
- 게임백과/ 라종섭편, 한국어린이 교육 선교회
- 새노래 율동모음/ 최은정, 은혜출판사
- 새노래 율동/ 라종섭, 조영미 공저, 한국 어린이 선교회
- 율동/ 김신옥 편, 한국교회교육협회
- 일어나라 삼손/ 강정훈, 늘빛출판사
- 김홍영교회 성극집/ 김홍영, 백합출판사
- 타오르는 횃불/ 강정훈, 한국문서선교회
- 하나님께 영광을/ 김효진, 성광문화사
- 크리스찬을 위한 회독집 1, 2, 3/ 김종철, 성광문화사
- 문학의 밤과 성극 그 지도와 실제/ 김종철, 한국어린이 교육 선교회

-기 타-

· 주보 자료백과 1, 2, 3/ 주보자료 연구회

구역예배를 위한

충현다락방

1990년 1월 5일 (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1과 새해 설계를 위한 성경적인 시간관리

시 39:4-7

요절: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4)

찬송: 296, 358장

서 론

송구영신! 우리는 시간세계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늘릴수도, 지정할수도, 정지시킬수도, 혹은 진행을 늦출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의미하게 보냈다면 그 인생은 실패작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지혜를 배웁시다.

1. 그릇된 사용

사단처럼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자는 결코 없습니다. 사단은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시간투자는 낭비에 불과합니다.

다음의 성경구절을 통해 그릇된 시간 사용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1) 우선순위: 시 39:6, 시 127:1-2, 마 6:19-20을 읽으세요. 여기에 나타난 그릇된 시간 사용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 게으름: 잠 6:9-11, 잠 26:14, 잠 13:4을 읽으세요. 게으름이 인생에 미치는 결과가 어떠합니까?

3) 당신의 생활속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2.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1) 엡 5:15-18

2) 마 6:33

3) 히 10:24-25

4) 위의 말씀속에서 당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새해의 시간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공부한 말씀에 기초하여 구역식구들과 이야기 해 봅시다. 버릴것은 버리세요.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계획이면 구체화 시키세요. 기도하면서 실행하십시오.

4. 서로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구역장이 기도회를 짧게 인도하세요.

☆ 교구 통신

충현다락방 집필진이 바깥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김영구목사, 김성윤목사, 송태근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990년도에는 송태근목사, 김해규목사님이 이난을 맡아 집필하여 주시겠습니다.